

다고 생각합니다. 편협 되고, 주관적인 인식에서 관리 운용될 경우, 분명 그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용성이 중요하고, 합리적 사고 위에서 관리 운영될 때 많은 찬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특정단체에 소속된 기구로 생각하거나 그러한 운영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회의석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일침으로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산, 가공, 판

매, 홍보에 크게 기여해 온 유가공업체 측에도, 특히 경쟁국보다 높은 원료가격과 소비부진 속에서도 연간 2,000~2,500억원의 광고비를 투입하면서 소비홍보에 기여해온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조 활동이 과감하며 훌륭하게 전개되어 우수소비가 촉진되고 국내 시장확대에 크게 기여되어 시장이 안정을 가하게 될 경우, 그 공은 낙농가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낙농자조금사업에 대한 세가지 바램



낙농진흥회 전무 서극수

우 선 낙농가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던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이하 “자조금 사업”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낙농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낙농산업분야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찬 기쁨과 기대로 설레는 심정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낙농분야의 자조금 사업은 지난 '98년의 우유수급불균형이 그 계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소비부진 등으로 인하여 우유가 남

아돌아 우유 기본가격 인하문제가 거론되게 되었고,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유가격 인하 보다는 생산자 스스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자조금 사업 시행계획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흔히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데 우리 낙농자조금 사업 역시 위기 속에서 찾아낸 기회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자율적인 임의 자조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반추해 볼 때 그 기회라고 하는 것도 결코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지난 7년여 동안 낙농분야에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조금 거출에 협조해 오신 낙농가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더욱 뜻 깊은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타 축종에 비해 우리 낙농분야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낙농분야는 그 간의 임의자조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축적하고 있는 소비홍보분야의 탁월한 노하우와 의무자조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결합한다면 추측컨대 소비확대의 새 지평을 충분히 열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조금 사업분야에 문외한인 본인이 단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평소의 생각을 몇 가지 정리하는 수준에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업이 잘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갖고 일치단결 하여야 하겠다. 낙농 자조금은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조금 사업이 지향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도 주체의 탁월한 추진력의 바탕위에 구성원의 의지와 결집이 따른다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충분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실행주체의 역량을 전적으로 믿고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실행주체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지나친 간섭이 많다 보면 당초 계획과 다른 결과를 얻기가 십상이다. 사실 자조금 사업은 소비홍보사업인 만큼 각자 저마다의 의견과 방법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속담처럼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 결과를 신중하게 검증하는 성숙한 자조금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술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우유의 생산구조상 소비홍보활동이 가급적 '수요비수기'인 12~4월에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운용되었으면 한다. 수요비수기의 우유체화 문제는 모두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회계연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구조상 연말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우유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일정을 유연하게 잘 수립했으면 하는 의견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임 김남용 회장님 시절부터 시작된 낙농 자조금 사업은 이제 7년여 만에 새로운 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승호 초대 자조금 관리위원장의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추진력에 거는 낙농업계 구성원의 기대는 우리 낙농이 직면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더 높다 하겠다.

오랜 산고 끝에 얻은 옥동자의 탄생에 대한 기쁨이 더 큰 것처럼 그 간의 역경을 이겨내고 탄생한 우리 낙농 자조금 사업의 새로운 출발에 다시 한번 경의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율과 협력의 바탕위에 낙농 자조금사업을 통하여 낙농산업계의 영원인 소비진작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 낙농 산업과 낙농가의 발전이 함께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